

01 교회소식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베네수엘라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02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1)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말 한마디, 작은 행함에도 감동을 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베네수엘라에 임한 은혜의 단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은 빅토르 히메네스 성도가 씨앗이 되어 만민지성전이 세워지는 등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04 간증

“교회에 다녀도 세상 짝하며 살았으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온 가족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가는 몰도바 막심 추바추크 형제와 이범수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83호 2019년 4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위로와 평안, 치유의 역사로 충만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베네수엘라 선교, 116개 협력교회 증가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에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크게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지난 3월 12일부터 11일 동안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 사진 1)가 베네수엘라 3차 선교를 통해 목회자와 일꾼 세미나, 권능의 손수건 집회 등 총 아홉 차례의 집회를 인도한 것이다.

십자가 구원의 섭리가 선포된 '만민성결세미나'

3월 12일에는 볼리바르 주 시우다드 과야나에서 주의 종과 일꾼 140여 명이, 13일에는 볼리바르 주도인 시우다드 볼리바르에서 650여 명이, 19일에는 아라쿠이 주 산 펠리페에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만민성결세미나'가 진행되었다(사진 2, 3, 7).

강사 장정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담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인 설교인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선약과를 두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명쾌한 풀이와 깊이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박수로 호응하였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한 '손수건 집회'

3월 16일에는 안소아테기 주 바르셀로나에서, 21일에는 타치라 주 파나메리카노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집회가 열렸다(사진 9).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행 4:12)에 대해 전한 뒤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시력이 회복되고 말라리아, 심장병, 천식, 척추측만증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다. 특히, 호수에 곤살레스(5세)는 일어나 걷지 못했는데 기도받은 후 난생 처음 걷게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사진 6).

연합철야를 비롯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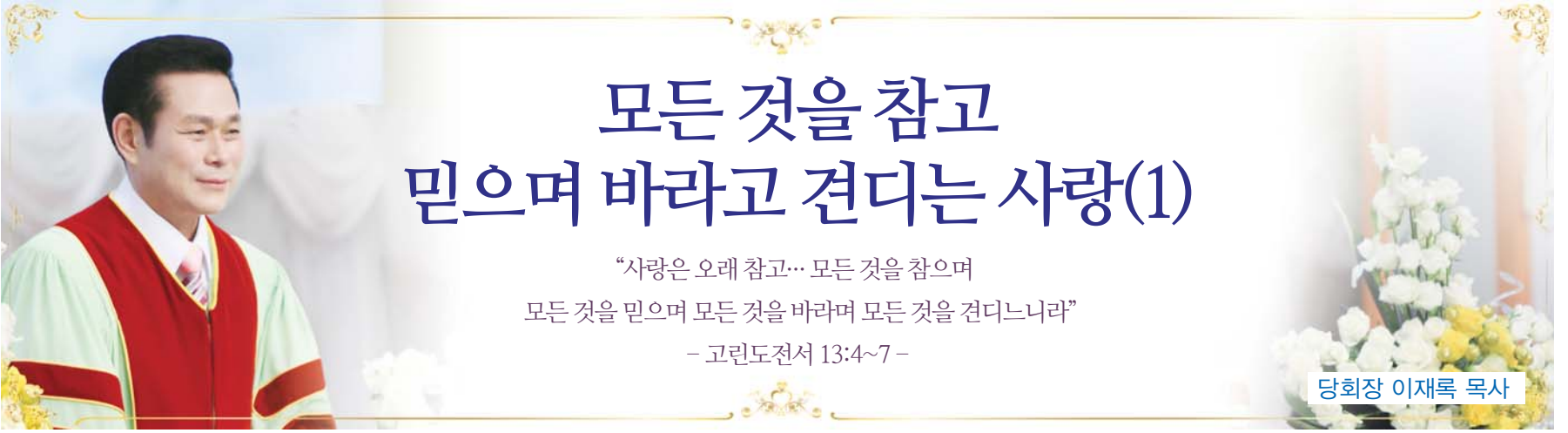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목회자협의회 주최로 3월 15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철야 집회가 진행되었다(사진 4, 5). 강사 장정연 목사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기도의 요령'(눅 22:39~44)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밖에도 3월 14일에는 빅토리아교회에서 '열므나의 비유' 말씀을, 15일과 17일에는 새에루살렘교회에서 각각 '성결'과 '겉옷을 팔아 겹을 사라'는 말씀을 전했다(사진 8). 또한 20일과 22일에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각각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12일과 21일에는 각각 시우다드 과야나 만민지성전과 파나메리카노 만민지성전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베네수엘라 선교는 인터넷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빅토르 히메네스 성도를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장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나 큰 반향을 일으킴으로 3차 선교가 진행된 것이다(3면 참조).

이를 통해 총 116개 교회가 만민의 협력교회로 가입하였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1)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린도전서 13:4~7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6절을 보면 사랑의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네 가지로 간단히 결론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각각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도 참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항목이 나오지요. 이처럼 마음의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온갖 시련을 참는 자기와의 싸움이 '오래 참음'이라면 '모든 것을 참는 다'는 것은 더욱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일군 후에 상대로 인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참는 것이지요. 곧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차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만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이라도 잠잠히 참아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셨지요(눅 23:34).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신 결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참고 또 참아 주며 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죄같이 단단한 사람도 같고 다듬어 변화시켜 가지지요. 0.000001 퍼센트의 가능성조차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라도 어찌하든 변화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마 12:20).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시지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

라도 선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보며 기다리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 보이시며 믿음으로 견디십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렘 31:3).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오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도 언젠가 변화되어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며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또한 변화될 때까지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결국 많은 성도가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순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도 그 시간을 짧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벧후 3:8).

2.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란?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도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설령 상대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찌하든 믿으려 하지요. 반면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도 없습니다. 늘 판단, 정죄하고 사사건건 다툵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말씀을 백 퍼센트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했는데,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라야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여 사랑과 위배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뤘다는 것은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상대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라도 믿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늘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뤄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믿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으셨지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셨기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로 나올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믿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란?

사람들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려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뤄질 것을 바라지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므로 현실 속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투며 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갖고 누린다 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든 것을 바라므로 좁은 길을 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

지 않는 사람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등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했습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수고해야 하니 고생스럽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것보다 행복한 길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설레고 즐겁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리거나 공부를 못하는 자녀라 해도 부모가 “잘할 수 있어!” 하며 믿어주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얼마든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자존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심리가 학업 성적을 높인다고 합니다. 영혼을 갈무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상대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하거나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지요.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어떤 영혼이든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진정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함에도 많은 영혼이 감동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빅토르 히메네스 성도 (45세,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과야나 시)

2010년 어느 날,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창세기 강해’ 등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으며 온밤을 보냈지요.

저는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장정연 목사님(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과 연결되어 교류를 이어갔지요. 그러면서 제게는 베네수엘라에 만민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성결의 중요성 등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게 되니 주변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만민뉴스와 십자가의 도 CD를 전달하고, SNS를 통해 당회장님의 권세 있는 성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민지성전이 세워지고 각종 질병이 치료되며

마침내 2018년 3월 27일,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과야나에 첫 번째 만민지성전이 세워졌고(사진), 유튜브

브 생방송을 통해 콜롬비아만민교회 주일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전화를 통해 장정연 목사님의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몸의 마비가 풀리는가 하면, 혈액순환장애, 부정맥, 신장질환, 축농증 등이 치료되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까렐리스 쏘프 알레만 성도는 난소에 5센티의 낭종이 기도받은 뒤 사라졌고, 니뇨 에두아르도 고메스 아동은 수종, 복부염증, 저혈압 증상이 신속히 호전되었습니다. 돌비스 데 세들빠 자매는 기도받을 때 불이 임하면서 무언가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은 뒤 경부통증이 치료되었지요. 저희 가족도 치료 받아 병원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

2018년 7월에는 장정연 목사님이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변 지역과 도시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예배를 드리고 당회장님의 말씀과 환자기도를 통해 에이즈, 탈장, 두통 등 많은 질병이 치료되었지요. 또한 과야나 시 목회자협의회 부회장 프랭클린 발렌시아 목사님을 통해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손수건 기도를 받고 시력이 회복되고 통

증이 사라지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9월에는 과야나 시 기념광장에서 치료와 기적의 야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피부병,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지요.

과야나 시 목회자협의회가 주관한 집회에는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아라쿠이 주에서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말씀에 은혜받고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를 통해 카라보보 주 발렌시아에 두 번째 만민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넘쳐

2019년 3월, 베네수엘라 목회자들의 간절함 속에 치러진 세 번째 선교는 그들이 얼마나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중남미 사역의 진원지가 된 듯하였지요(1면 참조). 더욱이 파나마리카노의 콜론시토 지역에 세 번째 만민지성전이 세워지는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만민의 사역에 베네수엘라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살아 계셔서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치니 제 삶이 달라지고 축복이 임합니다”

막십 추바추크 형제 (24세, 몰도바만민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싫어 고민하고 지옥이 두려워 회개도 했지만 죄에 대한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 죄를 버려나갈 수 있고 변화되어 성결을 이루는 만큼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 다니엘철야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멀쩡하게 깨끗해지신 것입

니다. 약이나 연고 없이도 말입니다. 이쁜 아니라 어머니는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기력이 전혀 없어 누워만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는 중에 몸이 좋아지셨고, “아멘”으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온전히 치료되어 놀라워하셨지요.

23년간 고통받던 세균성 습진을 치료받으신 어머니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식당 봉사와 전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무용팀으로, 저는 방송 엔지니어 등으로 충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와 책자를 건네주었고, 저는 ‘십자가의 도’ 말씀부터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충만함과 기쁨으로 넘쳤고,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아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했지요.

또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에는 어머니와 여동생도 교회에 등록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어머니(나탈리아 추바추크)는 세균성 습진으로 인해 손에 항상 고름이 차 있었고, 딱지가 생기며 피가 나는 등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5주 동안 입원한 적도 있었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기에 어머니는 항상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불같은 기도

로 죄를 버려나갈 수 있고 변화되어 성결을 이루는 만큼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 다니엘철야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멀쩡하게 깨끗해지신 것입

니다. 약이나 연고 없이도 말입니다. 이쁜 아니라 어머니는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기력이 전혀 없어 누워만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는 중에 몸이 좋아지셨고, “아멘”으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온전히 치료되어 놀라워하셨지요.

23년간 고통받던 세균성 습진을 치료받으신 어머니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식당 봉사와 전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무용팀으로, 저는 방송 엔지니어 등으로 충성하고 있지요.

저는 성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복음을 접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보장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아니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볼 때 성결의 복음이 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23년 된 세균성 습진을 치료받은 나탈리아 추바추크 성도의 손

“좋은 교회 만나 세계도 행복이 찾아왔네요!”

이범수 집사 (72세, 중국 1교구)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술, 담배를 벗 삼아 살면서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몸은 좌골신경통과 무릎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고, 고혈압과 위장장애 등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2013년, 이웃의 권유로 GCN방송(www.gcnet.org)을 통해 한국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쉽게 이해되어 마음에 잘 심어졌고, 매주 듣다 보니 믿음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한 뒤 술, 담배도 끊게 되었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좌골신경통, 무릎관절염, 고혈압, 위장장애를 모두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2014년 10월,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직접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해 겨울,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깨 통증을 치료받고, 아내(조선금 집사) 또한 불면증, 심장병, 위염 등 많은 질병을 치료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2017년부터는 나이가 많아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저희에게 교회에서 매달 구제해 주니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당회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던 성도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밥조차 편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치료비 때문에 치과에 못 가고 있던 제게도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지요.

저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틀니와 크라운 시술을 모두 마친 후 뭐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 행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내와 함께 만민뉴스를 전하며 주일에는 중국교구 식당 봉사로 섬기고 있지요.

좋은 교회를 만나 이처럼 건강을 되찾고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5-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신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산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